

“지역갈등, 영호남에서 수도권-비수도권·도-농 확산”

국민대통합위원회, 호남권역 국민대토론회서 주장 교육·인구·재정격차 확대 국가발전 저해 주원인

지역갈등이 영·호남간 갈등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내(강남-비강남), 도시·농촌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갈등 해소 여부가 선진국 진입을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인구·재정 격차의 확대 등으로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돼 ‘지방인구 고령화·취약계층 증가→지자체 복지예산 증가→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악순환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욱)

는 지난 1일 광주에서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2014 국민대토론회’ 호남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에서 2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사회갈등 및 양극화 등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대통합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2번째로 높았다. 사회갈등의 유형별 심각성 정도(5점에 가까울수록 심각)는 계층(3.70점), 노사(3.54점), 세대(3.37점), 이념

(3.37점), 지역(3.35점), 환경(3.27점), 성별(3.10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답변은 92.5%로, 국민 10명 중 9명이 갈등 해소를 한국 사회의 중요 해결과제로 꼽았다.

토론회에서도 사회갈등 중 지역격차로 인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역갈등은 교육격차로 이어져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 도시로, 서울로, 서울의 강남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도시인구는 과밀화되는 반면 농촌인구는 과소화와 함께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대되는 등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인구의 고령화는 복지예산 부담으로 연결돼 가족이나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까지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갈등은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2조~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게 대통합위의 주장이다. 대통합위는 이날 사회갈등 지수가 지금보다 10% 낮아진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GDP 기준 7~21%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관리하느냐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오는 15~16일 4개 권역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시안을 심층 논의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북전단 살포 놓고 남북관계 다시 경색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전에는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 정부가 2일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또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지난달 4일 전격적인 방남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은 한달 만에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인간의 자율적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나아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준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배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남북 대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티웨이, 무안~제주 첫 취항

전남도·광주시와 공동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주)티웨이항공이 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와 무안 간 국내선 취항 기념식을 갖고 첫 취항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함철호 (주)티웨이항공 대표이사, 이낙연 전남지사,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무안~제주 노선은 189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돼 매일 한차례 운행된다. 항공편은 무안에서 오전 6시50분에 출발하고, 복항편은 제주에서 화·목·토요일은 오후 7시5분, 월·수·금·일요일은 오후 8시35분에 출발한다.

가격은 편도총액운임 기준으로 주중 5만9900원, 주말 6만8900원, 성수기 및 할증운임 7만6900원이다.

티웨이항공의 무안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취항은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정기성 전세기 운항으로 13만 3000여명이 이용해 개항 이래 최대 이용 실적을 거뒀다. 이어 올 연말까지 중국 난창, 우한, 청도, 항저우 등도 운항될 예정이어서 지난해 실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무안~제주 매일 1회 왕복 운항

이낙연 전남지사와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함철호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김철주 무안군수, 티웨이항공 승무원들이 지난 1일 무안국제공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열린 티웨이항공 무안-제주 정기노선 취항식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무안-제주 노선을 매일 1회 왕복 운항한다. <전남도 제공>

檢 ‘로비의혹’ 치과의협 수사 새정치 ‘입법활동 탄압’ 항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검찰이 최근 입법 로비의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당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액수까지 확정된, 어버이연합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일련의 상향으로 볼 때 야당 탄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편파 분위기를 틈타 불공평, 표적적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불공정한 권력 남용에 대해 분명히 부당성을 제기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된 이들은 이석현 이미경 박영선 변재일 조성식 양승조 김기정 한명숙 장병완 이춘석 김용익 박수현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연합뉴스

“전남·中화동지구 연안도시협의체 구성하자”

이낙연 전남지사, 상하이 시장에 제안

이낙연 전남지사가 중국 방문 사흘째인 지난 31일 상하이에서 양승(楊雄) 상하이 시장을 만나 화동지구 연안도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자원 연구, 무역, 관광 부문 등에서 중국

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화동지구는 중국 6대지리구(六大地理區) 중 하나로 산동성, 장수성, 안후이성, 저장성, 장시성, 푸젠성 및 상하이시를 말한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양승 시장이 화동지구 연

안도시 협의체 구성은 관련 지역의 성장과 협의해 보겠지만 주도권은 상하이시가 갖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상하이시장과의 회담에서 상하이시는 전남과 전통의 우호 교류지역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전남이 개최한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제철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보내준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 입시정부가 존치되고 있는 상하이시는 한국인들에게는 각별한 지역이 아닐 수 없다”는 이 지사의 말에 양승 시장은 “한국입시정부 등 한국과 관련된 유적지를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승 시장은 상하이시가 조성중인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를, 이 지사는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각각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상하이 지역 수출 바이어 간담회를 갖고 800만 달러 수출계약에 성공해 이번 중국 순방을 통해 모두 18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이끌어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매선 30여대)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울베라, 세이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에드를 레이저: 스쿠스원, 아라울, 프리엠, 프락셀
③ 케모데이저: 켈름팩스, 다이오우드제로
④ 피부미백: 무데나스원, 엘셀, 켈름팩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프락셀유입,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락셀리 인트라세, 프락셀 세너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만: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층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